임영효교수의 신학: 『고신신학』 논문을 중심으로

Professor Younghyo Im's Theology focused on His Articles in Kosin Theological Journal

송 영 목

고신대 신학과 부교수

목 차

1. 들어가면서 | 411
2. 연구 주제와 방법론 | 411
   2.1. 연구 주제 | 411
   2.2. 연구 방법론 | 431
3. 임영효교수의 신학 특징 | 432
4. 나오면서 | 433

요약

임영효교수의 신학: 『고신신학』 논문을 중심으로

임영효교수는 1994년부터 2018년까지 24년 동안 고신대학교 실천신학, 선교학, 그리고 교회성장학 교수로 봉직했다. 이 글은 임영효교수의 연구 주제들과 방법론을 살핀 후, 신학의 특징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연구 범위는 임영효교수의 단행본을 제외하고, 소논문 가운데 고신대학교 학술지인 『고신신학』에 게재된 연구로 한정한다. 임영효교수의 논문을 요약하여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비평하는 순서를 따른다. 마지막으로 임영효교수의 신학은 성경 주해에 기반을 둔 실제적인 연구로서, 신학교와 교회의 분리와 간극을 매운 기여가 있음을 결론으로 평가할 것이다. 현직 목회자들은 임영효교수의 노력과 연구의 결실로부터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임영효교수는 자신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써 자신의 가르침과 연구 결과를 증명하는 모범이 된다.

Professor Younghyo Im's Theology focused on His Articles in Kosin Theological Journal

주요어

임영효교수, 교회성장, 영성, 리더십, 실천신학, 선교학

Abstract

Professor Younghyo Im' s Theology focused on His Articles in Kosin Theological Journal

Prof. Dr. Youngmog Song

Professor Younghyo Im served as professor of missiology and practical theology at Kosin University from 1994 to August 2018.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research topics and methodology of Prof. Im and evaluate them.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limited to Professor Im's articles published in Kosin Theological Journal. Attention is given to Professor Im's Scripture centered approach that is rooted in his conviction of the inerrancy and inspiration of the Bible. It is shown how this approach may overcome the gap between the theological schools and the local churches. Local pastors can get practical and biblical insights by Prof. Im's contributions and efforts. His Christ-like life style is in accord with his teaching and the result of researches. May the Lord keep Prof. Im and bless his further research for His glory.

Keywords | Prof. Younghyo Im, Church growth, spirituality, leadership, practical theology, missiology

1. 들어가면서

임영효교수는 1994년부터 2018년까지 24년 동안 고신대학교 실천신학, 선교학, 그리고 교회성장학 교수로 봉직했다. 이 글은 임영효교수의 연구 주제들과 방법론을 살핀 후, 신학의 특징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연구 범위는 임영효교수의 단행본을 제외하고, 소논문 가운데 『고신신학』에 게재된 연구로 한정한다. 임영효교수의 논문을 요약하여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비평하는 순서를 따른다. 마지막으로 임영효교수의 신학은 성경 주해에 기반을 둔 실제적인 연구로서, 실천신학, 선교학, 기독교교육, 신약학에 걸쳐 신학교와 교회의 분리와 간극을 매운 기여가 있음을 결론으로 평가할 것이다.

2. 연구 주제와 방법론

2.1. 연구 주제

2.1.1. 신약학 논문

① 편집비평에 대한 반성[1)]

편집비평은 자료비평과 양식비평의 전제를 이어받아, 복음서 편집자들의 삶의 정황이나 그들의 신학을 강조하기 위해 복음서 내러티브의 역사성을 희생시키거나 이탈한다.[2)] 복음서의 4자료설을 반대하면서, 성경의 영감성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 우선설을 지지하는 듯하다.[3)] 편집비평은 예수님과

1) 임영효, “편집비평에 대한 반성,” 『고신신학』 1 (1999), 49-69.
2) 임영효, “편집비평에 대한 반성,” 58.

복음서 기자들 사이의 연속성을 간과하고, 기자들의 독창성을 부각시킨다.[4] 하지만 복음서의 최종 형태가 역사성에 기반을 둔 영감 된 정경임을 인정하고, 병행 구절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대신 조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5] 불트만의 제자들이 시도한 편집비평을 나름 변용한 '복음주의 편집비평'을 수용하는 이들(예. I.H. Marshall, R.H. Gundry, W.L. Lane)은 문법-역사적 해석과 편집비평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6] 하지만 임영효교수는 그들이 편집비평이 지닌 전제나 방법론의 위험을 간과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한다.[7]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복음주의권에 속한 편집비평가들의 작업이 성공적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학자들 역시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편집자 자신의 신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역사성이 무시된 전승을 활용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 영감과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8] 부활의 주 예수님 즉 신앙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의 고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님에 관한 보도와 고백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복음주의 편집비평가들은 성령님의 영감이 복음서 기록자나 편집자에게 임하더라도, 열등한 편집이나 실수를 피하지 못하기에 편집비평적 분석에 의해서 그런 잘못된 요소들을 교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9]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성(無誤性)과 권위를 전제로 하는 개혁주의는 제쳐두고서라도 복음주의권 신학자로 분류할 수 없다. 하지만 성경의

---

3) 임영효, "편집비평에 대한 반성," 60-61.
4) 임영효, "편집비평에 대한 반성," 68.
5) 임영효, "편집비평에 대한 반성," 64.
6) 임영효, "편집비평에 대한 반성," 67.
7) 임영효, "편집비평에 대한 반성," 68-69.
8) 홍창표, "성경권위에 입각한 편집비평에 대한 평가," 『신학정론』 3/2 (1985), 288-93.
9) 탈봇신학교의 R. L. Thomas, "The Hermeneutics of Evangelical Redaction Criticism," *JETS* 29/4 (1986), 454, 459. Thomas는 문법-역사적 해석과 편집비평은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영감과 권위와 역사성과 무오성을 전제하면서, 최종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구성적(compositional) 의도를 살피는 연구는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를 찾는데 유익하다. 본 논문은 이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편집비평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한다.

②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한 연구[10]

대제사장적 기도(요 17)에서 예수님은 성육신의 목적을 자신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자이심(요 17:2) 그리고 성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들은 성부와 성자를 앎으로써 영생을 가짐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신다(17:2-3).[11] 이 기도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님의 소유(17:6),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17:6, 8),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17:8, 25-26),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17:11-12), 세상에 파송 된 이들이다(17:18).[12] 대제사장적 기도에 나타난 교회의 5가지 표지는 진리 안에서 기쁨(17:13), 진리로 인한 성화(17:14-17), 진리를 증거하는 선교(17:18), 진리 안에서 연합(17:21-23), 진리 안에서 사랑이다(17:26).[13] 대제사장적 기도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미래 종말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요 14:1-3; 계 22:1-5).[14]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표지들 그리고 성도의 미래를 찾는 작업은 매우 실천적으로 성도에게 소망을 주고 유익하다.[15] 그런데

10) 임영효,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한 연구," 『고신신학』 17 (2015), 115-54.
11) 임영효,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한 연구," 122-29.
12) 임영효,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한 연구," 130-38.
13) 임영효,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한 연구," 139-48.
14) 임영효,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한 연구," 150.
15)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는데(요 1:3), 주님은 세상에서 장치 믿게 될 후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다(요 17:20). 그리고 예수님은 신자들이 복음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것은 성육신의 목적 곧 성도에게 성령으로 장막을 치시는 것과 관련있다(요 1:14). 따라서 요 1장의 내용을 17장에서 상술하면서, 니케아신경이

성도의 미래적 종말의 근거 구절로 제시한 요한복음 14:1-3에 대한 최근 해석은 주님의 최종 파루시아 이전에 죽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낙원에 갈 것을 가리키고, 계시록 22:1-5는 신천신지 안에 사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에 대한 환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16]

③ 고린도후서의 구성의 통일성[17]

편집비평을 반대하는 저자는 고린도후서를 예로 들면서 '구성'의 통일성을 논한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목회사역에 대한 사도의 관점을 잘 알려주는 고린도후서 구성의 통일성을 찾기 전에 먼저 이 서신이 몇 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었다는 주장들을 소개한다. 고린도후서 10-13장을 1-9장보다 먼저 기록된 단락 혹은 1-9장과 무관한 단락으로 간주하는 단편 자료설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도전하는 가설이라고 비평한다.[18] 따라서 이 글은 비평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한 후에 비판하는 방식을 취한다. 고린도후서의 통일성은 사도적 목회(고후 1-7), 예루살렘교회를 돕는 구제헌금(고후 8-9), 사도적 권위에 대한 변증 및 방문 계획(고후 10-13)이라는 세 단락 사이의 논리적 응집력을 통해 나타난다.[19] 고린도후서는 기쁨, 완전함, 위로, 한 마음, 평안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주제가 서신 전체에 나타나는 통일성이 있다.[20] 자신의 논증을 위해서 필립 휴즈, 타스커, 키스트메이커, 칼빈 등을 자주 인용한다.

설명하듯이 교회의 참 표지들인 하나됨과 사도성과 거룩성을 강조한다. J. G. Janzen, "The Scope of Jesus's High Priestly Prayer in John 17," *Encounter* 67 (2006), 2, 26.

16) 참고. 송영목, "요한복음 14장의 거주지의 성격," 『신학논단』 79 (2015), 225-55; "예수님의 재림." 『교회와 문화』 37 (2016), 105-134.

17) 임영효, "고린도후서의 구성의 통일성," 『고신신학』 2 (2000), 101-126.

18) 임영효, "고린도후서의 구성의 통일성," 107.

19) 임영효, "고린도후서의 구성의 통일성," 110.

20) 임영효, "고린도후서의 구성의 통일성," 122.

이 논문이 지적하듯이, 고린도후서 1-9장과 10-13장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과 어조의 단절성으로 인해 통일성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본 논문은 고린도후서의 통일성을 반대하는 사본의 증거가 없고, 바울이 오랜 시간을 두고 이 서신을 기록했다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어조가 달라질 수 있었으며,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타난 용어의 통일성도 간과 할 수 없음을 밝힌다.[21]

④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죄에 대한 고찰: 히브리서 10:26-31을 중심으로[22]

임영효교수는 존 맥아더, 사이먼 키스트메이커, 칼빈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배교는 육체적 죽음을 초래했지만, 신약의 배교는 영원한 형벌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23] 히브리서 10:26의 현재분사형으로 나타난 범죄는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범죄를 가리킨다. 이 범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 경멸함으로써(히 10:29), 아들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성부를 무시하는 죄다.[24]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는 것은 영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거부하는 범죄는 성령께서 주시는 중생과 조명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다.[25] 이런 삼위일체를 거역하는 범죄를 위해서는 속죄제사가 더 이상 없으므로 구원을 상실한다(히 10:26). 이런 범죄의 원인은 핍박에 굴복하거나, 거짓 선생에게 미혹되거나(마 24:10; 딤후 4:3), 그리스도인과 교제가 단절되거나

---

21) 박성호, "정류 이상근 박사의 성서 해석: 고린도후서 주석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0/1 (2018), 46. 참고로 소위 '눈물의 편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이상근은 고후 10-13장이 논물의 편지의 특성을 포함하다고 본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독자를 혹독하게 꾸짖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대신 위로의 성격이 지배적이다.

22) 임영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죄에 대한 고찰: 히브리서 10:26-31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3 (2002), 199-219.

23) 임영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죄에 대한 고찰," 204.

24) 임영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죄에 대한 고찰," 209.

25) 임영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죄에 대한 고찰," 209.

(히 10:25), 구원을 등한히 하거나(히 2:3), 의지적으로 불신앙으로 일관한 것이다(히 3:19; 11:6).[26]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상실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책임을 가져야 한다.[27]

이 논문은 의도적 배교를 히브리서의 배경 속에서 파악할 뿐 아니라, 성도의 견인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 균형 있는 입장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히브리서가 배교(背敎)에 대해 밝히는 히브리서 6:4-6과 간본문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없는 것은 아쉬움이지만, 이것은 다른 논문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내용이다.[28]

⑤ 요약

편집비평의 전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린도후서의 단편성에 반대하며 통일성을 밝히는 연구는 성경의 영감성과 권위를 존중하는 임영효교수의 신학적 전제에서 볼 때 자연스럽다.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표지 그리고 미래를 찾는 것은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실제적인 위로를 주는 유익한 연구다. 이런 연구는 임영효교수가 석사과정에서 신약학을 전공한 장점을 살린 작업이다. 이른바 '복음주의 편집비평'을 비판한 논문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복음주의신학의 폐해를 적절히 지적한 기여가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중심으로 가라지들의 의도적인 배교와 그것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밝힘으로써, 구원받은 성도가 긴장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한다는 실천적 권면을 제공한다.

---

26) 임영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죄에 대한 고찰," 213-14.
27) 임영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죄에 대한 고찰," 215-16.
28) 가라지의 배교를 중심으로 하는 히 6:4-6의 주석적 논의는 송영목, 『시대공부: 신약으로 시대에 답하다』 (서울: 생명의 양식, 2017), 221-52를 보라.

2.1.2.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 논문

①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29)]

교회를 각성시키는 성령의 부으심인 부흥은[30)] 성령강림 이후 부흥을 맛본 예루살렘교회를 원형으로 삼는다.[31)] 부흥은 더 이상 없다는 주장과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대하면서,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인간의 책임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32)] 이를 위해 조나단 에드워즈, 이안 머레이, 마틴 로이드-존스를 종종 인용한다. 인간의 책임으로 부흥의 환경을 조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33)] 부흥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교회답게 변하는 것, 증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 핍박이나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예. 1907년 평양 대부흥과 1910년 한일합방) 등이다.[34)]

부흥의 특징은 생명력이 강화되고, 회심의 열매가 증가함,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면서 사람의 죄인됨도 인식함,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함, 모든 종류(계층)의 사람들이 감화를 받음, 한정된 기간 동안 유효함, 부흥이 주어지는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림, 부흥이 임하는 집회의 형식도 다양함, 한 지역 혹은 나라 전체에 부흥이 임함, 설교의 능력이 강화됨,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됨이다.[35)]

부흥의 결과는 전도의 열매, 지역 교회와 목회자가 증가함, 세상이 도덕적으로 변화됨이다.[36)] 그리고 부흥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인지해야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충만을 받아야

29) 임영효,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고신신학』 9 (2007), 51-81.
30) 임영효,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59.
31) 임영효,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61.
32) 임영효,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66-67.
33) 임영효,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69.
34) 임영효,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70.
35) 임영효,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71.
36) 임영효,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73.

하고, 성경교리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되 사람이 부흥을 조작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37]

이 논문의 부제에 성경 구절이 없는데서 볼 수 있듯이, 부흥과 관련된 성경주석적 접근 대신에 주제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성경에 산재해 있는 부흥을 살핌으로써, 부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패배주의에 점차 함몰되고 있는 현대 교회에게 참된 부흥을 열망하도록 불을 지피는 논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자료 활용이 미흡하다.

②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의 장(場)으로서의 직업생활에 대한 고찰: 데살로니가전서 4:9-12절을 중심으로[38]

그리스도인은 주일 예배와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극복해야 한다.[39]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선교사로 활동함으로써 창조명령 즉 문화명령(창 1:28)을 완성한다.[40] 데살로니가전서 4:9-12에 소개된 대로, 그리스도인은 일중독을 피하고 휴식과 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불신자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한다.[41] 그리스도인은 직장을 통해 이웃사랑과 구제(엡 4:28)를 실천해야 하는 목표도 이루어야 한다.[42] 예수님도 목수라는 노동과 직장을 가지셨다.[43]

---

37) 임영효,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77-78. 참고로 1920년대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2) 설교자는 하나님, 회개, 십자가, 천국, 지옥, 영생을 강론하며, (3) 준비를 위해서 2개월 전부터 홍보하며, (4) 음악을 준비하며, (5) 부흥회에 참석한 이들이 결단을 표시하도록 도와야 했다. 변인서, "부흥의 원리," 『신학지남』 9/2 (1927), 169-71.

38) 임영효,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의 장(場)으로서의 직업생활에 대한 고찰: 데살로니가전서 4:9-12절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5 (2003), 171-98.

39) 임영효,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의 장(場)으로서의 직업생활에 대한 고찰," 176, 181.

40) 임영효,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의 장(場)으로서의 직업생활에 대한 고찰," 177, 183.

41) 임영효,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의 장(場)으로서의 직업생활에 대한 고찰," 193.

42) 임영효,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의 장(場)으로서의 직업생활에 대한 고찰," 195.

43) 임영효,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의 장(場)으로서의 직업생활에 대한 고찰," 192.

이 논문에서 최근 핫 이슈 중 하나인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주중에 성도의 예배적 삶과 직장을 선교지로 인식한다. 그리고 선교명령(마 28:19-20)을 완수하는 방법으로서 문화명령의 가치를 인식하는 점은 돋보인다.[44] 일반 성도가 선교를 수행하는 자원이라는 인식은 특별히 WCC 웁살라대회(1968)를 앞두고 북미지역 모임에서 논의되었다.[45]

③ 영적지도력의 본질로서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연구[46]

섬김의 리더십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달려 있다. 예수님은 성령충만하셔서 열매를 맺으신 모범이시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시행하는 길이다.[47] 임영효교수는 존 맥아더가 내린 성령의 열매의 정의를 의존하면서, 특히 구약의 야웨, 예수님 그리고 바울을 섬김의 리더로서 제시한다.[48] 더불어 영적 지도자인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존 스토트 등이 모델로

---

44) 세속적 학문 방법과 목표를 지양한 채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문화명령과 신앙을 강조하는 선교명령을 조화시킨 것이 이상적인 기독교대학의 모델이라는 주장은 권오병, "기독교 대학 경영의 역세속화를 위하여: 대학의 사역적 탁월성과 학문적 수월성의 관점에서," 『로고스 경영연구』 3/1 (2005), 74를 보라. 참고로 권오병의 이 논문에 각주와 참고문헌이 없다.

45)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샬롬: 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선교와 신학』 24 (2009), 264-65, 273. 정승현은 위트레흐트대학교와 유니온신학교에서 교수했던 호켄다이크(1912-1975)가 수직적 구원을 무시하고 수평적 샬롬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한다. 참고로 데살로니가전서의 역사적 해석과 구속사적 해석을 통합은 송영목, "데살로니가전서의 출애굽주제와 반로마적 메시지의 결합," 『신약논단』 23 (2016), 477-516을 참고하라.

46) 임영효, "영적지도력의 본질로서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연구," 『고신신학』 14 (2012), 357-422.

47) 임영효, "영적지도력의 본질로서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연구," 371.

48) 임영효, "영적지도력의 본질로서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연구,", 388, 408, 416.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간략한 주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성교육의 원리를 찾는 경우는 강용원, "기독교 인성교육의 성경적 기초," 『기독교교육정보』 47 (2015), 377-79를 보라.

제시된다.[49] 성경의 여러 구절을 주제별 연구방식으로 전개하되,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모델로 제시하며, 성경 인물과 현대의 경건한 리더를 예로 든다.

이 논문은 총 66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에 백과사전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최근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었다.

④ 영성개발과 교회성장: 마 28장 1-20을 중심으로[50]

지상(至上)명령(마 28:19-20)은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51] 영성개발은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교회성장의 3단계로 발전한다: (1) 가라 즉 사랑의 대면과 수고를 함, (2) 세례를 줌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헌신하도록 훈련함, (3) 가르침 즉 실천과 변화에 초점을 둔 양육을 함.[52] 사랑과 교제와 양육을 통해서 가능한 교회성장의 목표는 지상명령의 주동사인 제자를 삼는 것인데, 제자는 믿고, 배우고, 따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스승을 닮는 이를 가리킨다.[53]

이 논문은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을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성경적 근거로 삼아서, 교회성장의 세 단계를 찾고 교회성장의 목표인 제자삼음의 근거를 주석적으로 찾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영성개발과 교회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예배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있음을 밝힌다.[54]

---

49) 임영효, "영적지도력의 본질로서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연구," 379.

50) 임영효, "영성개발과 교회성장: 마 28장 1-20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0 (2008), 107-153.

51) 임영효, "영성개발과 교회성장: 마 28장 1-20을 중심으로," 148.

52) 임영효, "영성개발과 교회성장: 마 28장 1-20을 중심으로," 114, 120-29.

53) 임영효, "영성개발과 교회성장: 마 28장 1-20을 중심으로," 134, 141.

54) 교회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예. 대화, 다양성 이정, 조직 정비) 통한 교회성장을 이루는 주석적 연구는 노재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과 성장에 관한 연구: 사도행전 6:1-7을 중심으로," 『개혁주의교회성장』 5 (2000), 84-122를 보라.

⑤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에 필요한 덕성들: 벧후 1장 1-11절을 중심으로[55]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을 개발하는 근거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인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8가지 덕성을 계발해야 한다(벧후 1:5-7): 영성개발의 출발점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도덕적인 탁월성인 덕,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는 지식, 예수님의 통제에 굴복하는 절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인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경건, 신앙공동체의 구성원을 사랑하는 형제 우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사랑이다.[56] 이 가운데 첫 여섯 가지 덕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야 할 덕성이고, 마지막 두 가지는 사람 관계에 대한 덕성이다. 영성개발의 결과는 열매를 맺고(벧후 1:8),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1:9), 구원의 확신과 배교를 방지하고(1:10), 하나님의 니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다(1:11).[57]

이 논문은 베드로후서 1:1-11을 한 절씩 주해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회 구성원들의 영성개발이 필요하고 시급함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사회개혁보다 구성원들의 영성개발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사역에 임해야 함을 강조한다.[58]

---

55) 임영효,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에 필요한 덕성들: 벧후 1장 1-11절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2 (2010), 179-222.

56) 임영효,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에 필요한 덕성들," 186, 189, 201-211. 이와 유사한 벧후 1:5-7의 주해적 실천신학 연구는 강용원, "기독교 인성교육의 성경적 기초," 385-89를 보라.

57) 임영효,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에 필요한 덕성들," 213-18.

58) 참고로 구약 인물의 영성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특성과 삶"에 관하여, 한상인, "구약 인물과 현대인의 영성," 『성령과 신학』 18 (2002), 7-38을 보라. 그런데 한상인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죄악 극복의 영성을 설명할 때 (29-30페이지) 성경을 언급하거나 본문 주해를 시도하지 않는다.

⑥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엡 4:1-16을 중심으로[59]

현대 교회성장 이론과 프로그램은 성경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회 성장의 주된 방편은 말씀 사역자들임을 밝히고 있다(엡 4:11).[60]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 선지자직은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목사의 역할이 부상되었다.[61] 교회성장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엡 4:11-12): 말씀사역자가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써[62] 온전케 하고, 성도가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63] 교회성장의 목표(엡 4:13-15)는 교회의 영적(믿음과 지식) 통일성을 보존하고 영적 성숙을 증진하는 것이다.[64] 교회성장의 결과는 성도가 교리와 믿음에 굳게 서고(살전 3:2),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엡 5:15).[65] 교회성장의 원천(엡 4:16)은 교회의 머리로서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시며, 사랑은 교회성장의 환경이다.[66] 이런 질적 성장을 이룬다면 양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67]

이 논문에서는 최근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성경적 교회성장의 원리와 목표를 제시하는데, 인본적인 양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현대의 연구 방법론을

---

59) 임영효,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엡 4:1-16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3 (2011), 9-65.

60) 임영효,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19, 21. 최홍석에 의하면, 엡 4:11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하는 자는 '비상 직원들'(extraordinary officers)이며, 목사 즉 교사는 '통상 직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에서 원리상 선지자로서의 목사와 왕으로서의 장로와 제사장으로서의 집사 직분이 도출되었으며,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다. 최홍석, "성경적 직제이해(職制理解)를 위한 교회론적 배경," 『신학지남』 82/1 (2015), 13, 24, 32-34.

61) 임영효,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23, 28.

62) 기도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면서도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나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종윤, "신약에 나타난 기도와 교회 성장," 『신학정론』 5/1 (1987), 49-50을 보라. 이종윤의 이 논문에 참고문헌이나 각주가 없다.

63) 임영효,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29-31.

64) 임영효,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39-40.

65) 임영효,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47.

66) 임영효,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53.

67) 임영효,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61.

거부한다.[68]

⑦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69]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리더십의 교과서'라 불리는 초기 서신인데, 현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리더십의 기교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리더십의 원리를 보여준다.[70]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감동을 주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7-12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제시한다: 생명을 나누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리더십(살전 2:11), 연대의식 속에서 사랑과 인내로써 구성원을 양육하고 필요를 채우는 리더십(살전 2:7), 언행일치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살전 2:10), 개별 구성원의 상황에 맞게 권면하는 리더십(살전 2:10).[71] 크리스천 리더십의 목표는 일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살전 2:12).[72]

본 논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7-12를 주해하여 기독교 리더십을 밝힌다. 반면에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크리스천이 멘토링을 통한 리더십의 개발을 위해 매력적이어야 하고, 친밀감을 갖추어야 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73]

---

68) 교회성장을 위해서 변화의 주체인 교회 내부 리더와 내부 구성원 사이의 내부마케팅, 변화의 주체인 교회 내부 리더와 지역의 잠재 신도 사이의 외부마케팅, 그리고 교회 내부 구성원과 지역의 잠재 신도 사이의 상호작용마케팅이라는 마케팅전략을 적용하는 경우는 김형길·이규현, "교회성장을 위한 마케팅과학의 적용," 『로고스 경영연구』 11/2 (2013), 42-43, 50을 보라. 김형길과 이규현은 마케팅전략을 하나님과 성경 중심의 교회성장을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략을 구사하는 교회의 핵심 구성원들이 마치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듯하다.

69) 임영효,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 살전 2:7-12를 중심으로," 『고신신학』 7 (2005), 17-50.

70) 임영효,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 살전 2:7-12를 중심으로," 22.

71) 임영효,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 살전 2:7-12를 중심으로," 24-34.

72) 임영효,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 살전 2:7-12를 중심으로," 38-29.

⑧ 사도 바울의 사역관: 골로새서 1장 24-29절을 중심으로[74]

바울의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골 1:25), 사역의 정신은 사명에 충실히 임할 때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1:24).[75] 바울의 사역의 주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특히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골 1:26; 요 14:23).[76] 바울의 사역의 내용과 형태는 지혜 즉 성경적 원리를 깨달은 통찰력으로써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다(골 1:28).[77]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골 1:28).[78] 사역의 원천과 자세는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골 1:29).[79]

이 논문에서 존 맥아더와 위렌 위어스비를 인용하는데, 골로새서 1:24-29에서 바울의 사역의 근거, 정신, 주제, 내용, 형태, 목표, 원천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은 목회자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 유익하다.

⑨ 유다서가 보여주는 리더십 개발의 원리[80]

영적 지도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보존을 받는 자이다(유 1).[81] 영적 지도자의 조건은 사명에 헌신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사랑하는 자이다(유 2-3).[82] 유다서의 수신자들을 미혹하던 거짓

---

73) 문병하, "크리스천 리더십으로서의 맨토링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8/1 (2010), 367-73.
74) 임영효, "사도 바울의 사역관: 골로새서 1장 24-29절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9 (2017), 287-321.
75) 임영효, "사도 바울의 사역관," 295-302.
76) 임영효, "사도 바울의 사역관," 307-308.
77) 임영효, "사도 바울의 사역관," 310-12.
78) 임영효, "사도 바울의 사역관," 314.
79) 임영효, "사도 바울의 사역관," 317-18.
80) 임영효, "유다서가 보여주는 리더십 개발의 원리," 『고신신학』 16 (2014), 219-81.
81) 임영효, "유다서가 보여주는 리더십 개발의 원리," 230-35.

선생들과 대조되는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내적 자질은 믿음(유 4-5), 겸손(유 1, 6, 9), 절제(유 4, 8, 11), 인내(유 22-23), 분별력이다(유 3-4).[83] 유다서 12절에 의하면, 영적 지도자의 특성은 연합을 파괴하지 않고 통합시킴, 무책임하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 이타성, 거짓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 신뢰성, 열매를 맺는 모범성,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도덕성,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다.[84] 영적 지도자의 사역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유 20),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유 20),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다(유 21).[85]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확신은 궁극적 성화와 구원이다(유 24).[86]

임영효교수의 일부 논문들과 달리 이 논문은 제목에서 밝히듯이, 한권의 성경인 유다서 본문 전체에 집중하여 영적 지도자의 정체성, 조건, 내적 자질, 특성, 원동력, 그리고 확신을 주제별로 전개한다. 그리고 존 맥아더, 월트 라이트 그리고 제임스 민스를 종종 인용한다.

본 논문은 월터 라이트의 "리더십은 지위와 역할에 관계없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이다"라는 정의에 근거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87]

---

82) 임영효, "유다서가 보여주는 리더십 개발의 원리," 236-40.
83) 임영효, "유다서가 보여주는 리더십 개발의 원리," 241-53.
84) 임영효, "유다서가 보여주는 리더십 개발의 원리," 254-64.
85) 임영효, "유다서가 보여주는 리더십 개발의 원리," 267-71.
86) 임영효, "유다서가 보여주는 리더십 개발의 원리," 272-76.
87) 유다서에 나타난 수사학적 논증 방식은 송영목, "유다서의 구문과 구조적 특성," 『신약논단』 28/1 (2018), 181-206을 보라.

⑩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의 원리: 데살로니가전서 1:5-7을 중심으로[88]

데살로니가전서 1:5는 기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 복음'이라 소개한다. 이것은 바울이 체득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89] 이런 교육의 내용은 삶의 문제라는 학습자의 욕구지향에 최고의 관심을 두는 경향과 다르다. 교사가 전달하는 방법은 능력과 성령과 튼 확신이다(살전 1:5). 교사는 성령의 조명과 (필요하다면) 기적과 충만하게 확신시키시는 능력(롬 5:5)을 의지해야 한다.[90] 교사의 행위는 교사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도록 삶이 메시지가 되도록 드러내는 것이다(고전 4:17; 살전 1:5).[91]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이의 행위는 기독교교육의 3대 기둥과 같다. 기독교교육의 최종 목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이다(살전 1:6-7).[92]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벧전 1:15-16)는[93] 사랑(마 5:43-48)과 고난을 극복함(마 16:24-25),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본 논문에서는 마태복음 28:19-20은 선교명령인 동시에 교육명령(The Great Educational Commission)임을 밝힌다.[94]

최근 자료는 거의 없고, 데살로니가교회의 역사적 상황을 비롯한 세밀한

---

88) 임영효,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의 원리: 데살로니가전서 1:5-7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8 (2006), 99-127.

89) 임영효,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의 원리," 107, 112. 참고로 김철홍은 살전 1:9-10이 바울 이전 혹은 이후의 자료인지 불명확하다고 보며, 바울이 자신이 할 일을 할 것을 데살로니가교회에게 가르쳤다고 주장하면서도(살전 4:11), 논문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김철홍, "Some Sociological Implications of Paul's Earliest Teachings in First Thessalonians," 『선교와 신학』 27 (2011), 380. 데살로니가전서의 바울 저작성과 영감성과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90) 임영효,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의 원리," 114.

91) 임영효,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의 원리," 106.

92) 임영효,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의 원리," 122-23.

93) 데살로니가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를 받아 순교하신 모델로 제시한다(살전 1:6). 김형동,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난 환난과 로마 제국의 상관성에 대한 재조명," 『신약논단』 17/2 (2010), 343, 350.

94) 임영효,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의 원리," 125.

주석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부제에 명시된 성경 구절 이외의 여러 구절에서 논거를 도출한다. 이런 성경 주해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는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맺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설문조사를 통한 조철현의 연구에 의하면, 교회학교 교사는 소명, 성품, 영성, 교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대 교회는 연륜(年輪)을 갖춘 교사를 더 많이 확보하고, 연륜이 부족한 교사에게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95] 이러한 교사의 리더십이 확보된다면, 교회교육의 목표를 성경적 방법을 동원하여 달성할 수 있는데, 교사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⑪ 성경교육의 중요성: 딤후 3:15-17을 중심으로[96]

성경교육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명령이자(신 5:31-33; 잠 22:6), 주님의 가르치신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며(마 4:23), 성도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며(롬 15:14),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취하며(창 18:19; 롬 12:2), 성도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며(신 10:12-13; 시 119:11), 악을 이기도록 무장시키며(행 20:29-32),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전 12:13; 빌 1:9-11),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거하게 하며(요일 2:24), 영적 성장을 이루며(갈 5:22-23),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딤후 2:15).[97]

성경의 독특한 역할은 구원(딤후 3:15)과 성화를 가르치는 것인데(딤후 3:16-17),[98] 성경의 독특한 권위는 영감 되었으며 오류가 없는 것이다(딤후 3:16).[99] 디모데후서 3:16에 의하면, 성경의 사역은 교훈하며, 책망하며, 의로

95) 조철현, "교회학교 교사 리더십 역량 연구: 부산지역 K교단에 속한 중형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43 (2014), 267-68, 287.
96) 임영효, "성경교육의 중요성: 딤후 3:15-17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5 (2013), 132-91.
97) 임영효, "성경교육의 중요성," 142-55.
98) 임영효, "성경교육의 중요성," 156-59.
99) 임영효, "성경교육의 중요성," 162.

써 교정하며, 올바른 삶으로 훈련시켜 이끄는 것이다.[100] 성경교육의 목표는 선한 사역을 위해 성도를 오전히 구비시키는 것이다(딤후 3:17).[101] 이 논문의 부제목에서 밝히는 것과 달리, 성경교육의 필요성은 디모데후서 3:15-17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찾아낸다. 하지만 성경교육의 역할, 권위, 사역, 그리고 목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102] 또한 논의의 해당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혁주의자들이나 건전한 복음주의자들(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존 스토트, 존 파이퍼, 존 맥아더, 워렌 위어스비, 조엘 비키, 게리 브레드펠트, 제임스 보이스)을 종종 인용한다.

⑫ 요약

임영효교수의 실천신학 및 기독교교육에 대한 관심은 부흥, 성도의 직업생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 지도력, 영성 개발을 통한 교회 성장, 영성 개발을 위한 성도의 덕성 개발, 교회 성장의 원리, 크리스천 리더십, 목회자의 사역의 원리와 방법과 목표, 기독교교육, 그리고 성경교육의 중요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실천적이며 교육적인 연구 주제가 어떤 성경적 원리를 가지는가를 찾기 위해 마태복음 28장, 에베소서 4:1-16, 골로새서 1:24-29, 데살로니가전서 1:5-7, 베드로후서 1:1-11, 그리고 유다서를 주해한다. 이러한 논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실천신학의 성경적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관련된 성경본문들을 찾아 실천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므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성경적 원리와 적용점들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

100) 임영효, “성경교육의 중요성,”168-77.

101) 임영효, “성경교육의 중요성,” 180.

102) 참고로 딤후 3:16에서 바울은 성경이 목회자나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거짓 선생을 교육하는데도 유익하다고 설명한다는 견해는 이광진, “목회서신의 교육사상,” 『신약논단』 21/2 (2014), 570을 보라.

2.1.3. 전도학(선교학) 논문

①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관한 고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중심으로[103]

예수님이 시행하신 성육신적 전도방법을 요한복음 1:14가 보여준다.[104] 현대는 말로 들려주는 전도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이 동반된 전도가 필요하다.[105] 낮아져서 맞춤식으로 전도해야 한다(고전 9:19; 빌 2:6). 예수님은 성육신으로써 자기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셨듯이, 전도 대상자의 문화를 고려하고 그들의 삶과 함께 하는 전도가 필요하다.[106] 관계중심 전도인 오이코스 전도가 유용하며,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듯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가 효과적이다.[107] 예수님의 치유사역에서 보듯이, 장애인 사역이나 치유사역도 교회의 본질적 사역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108]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요 1:14), 은혜가 먼저 전달되어야 전도의 중심 요소인 진리가 잘 전달 될 수 있다(행 2:47; 엡 4:25, 32).[109]

임영효교수는 전도의 기술이 아니라 성경자체가 보여주는 전도의 특징과 목표를 석의를 통해서 잘 제시한다.[110]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출간하는 『선교신학』에 실린 51편의 전도 관련 논문들 중에서 임영효교수가 시도한 성육신적 전도나 영성개발과 연계된 논문은 거의 없다.[111]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께

---

103) 임영효,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관한 고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6 (2004), 137-75.
104) 임영효,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관한 고찰," 141.
105) 임영효,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관한 고찰," 143.
106) 임영효,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관한 고찰," 153, 155.
107) 임영효,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관한 고찰," 158.
108) 임영효,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관한 고찰," 159.
109) 임영효,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관한 고찰," 162.
110) 토착신학자 요한이 요 1:14를 기록했으며, 불신자를 전도하며 대화를 할 때 토착신학은 '열린 결론'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상대주의적 주장은 Y. H. Ki. "Planting an Indigenous Church in Korea as a Basis for Church Growth,"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3/1 (2014), 192를 보라. Ki는 토착화된 교회는 양적, 질적, 그리고 유기적 성장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설명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2:7-12가 아니라 성경의 다른 구절들로부터 결론을 도출한다.[112] 그리고 헬라어 단어의 정의를 내릴 때 헬라어 사전류보다는 성경강해서나 주해서를 참고하며, 최근 자료가 부족하다.

② 영성개발과 전도[113]

영성개발을 위한 부정적 요인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며, 주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적극적 요인은 성령의 기쁨이다(살전 1:6-8).[114] 영성이 개발되면 거룩과 사랑과 고난에서 예수님을 닮고(살전 1:6), 다른 신자의 본이 되고(살전 1:7),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살전 1:8).[115] 복음을 통한 내적 성장 곧 성화를 이루면 외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른다(행 2:47; 9:31; 골 1:6).[116]

본 논문에서는 영성개발과 전도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 성경본문들을 소개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며, 초대교회의 전도는 영성개발의 결과로서의 전도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제대로의 영성개발을 통한 구성원들의 성숙한 영성형성에 주력하지 못한데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가장 성공적인 전도사역과 진정한 교회성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는 내면의 변화작업인 영성개발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게 됨을 강조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영성'은 성경적인 용어로서는 '경건'임을 언급하고 있다.

---

111) 참고. http://www.dbpia.co.kr(2018년 5월 22일 접속).
112) 임영효,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 살전 2:7-12를 중심으로," 43-46.
113) 임영효, "영성 개발과 전도," 『고신신학』 11 (2009), 279-315.
114) 임영효, "영성 개발과 전도," 287.
115) 임영효, "영성 개발과 전도," 293-97.
116) 임영효, "영성 개발과 전도," 297-305.

③ 요약

전도학(선교학) 연구는 성육신적(成肉身的) 전도와 영성개발을 통해 전개된다. 이를 위해서 전자를 위해서는 요한복음 1:14를 주해한다. 이런 주제를 산정한 이유는 실천신학과 선교학의 주임교수로서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성육신적 전도와 영성개발의 필요를 느낀 데서 기인할 것이다. 이외에 선교학에 관한 연구는 임영효교수가 저술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선교학』에서 "선교해석학", "성경적 선교", "초기 한국교회 성장의 주요 요인들", "바울의 선교사역", "애니미즘 상황에서의 세계관의 변화", "문화적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 "선교적 모델로서의 안디옥교회" 등을 다루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고신신학』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논의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2.2. 연구 방법론

임영효교수는 실천신학과 선교학의 영역에서 상황과 경험에서 사역의 원리와 방법을 찾아내는 주관적 연구방법이 아니라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말씀에서 모든 사역의 원리와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까지라도 찾아낼 수 있는 성경중심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개혁주의 실천신학자들로 알려져 있는 R. B. 카이퍼(Kuiper)나 J. E. 아담스(Adams)나 클라우니(Edmond P. Clowney)의 연구방법이 성경에서 프락시스(praxis)[117]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던 성경신학적인 방법이었듯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성경 해석 시 역사비평을 반대하고(예. 편집비평에 대한 비판) 문법-역사적

117) 명사 'Praxis'(프락시스)는 '실천' 혹은 '실천적 경험'으로 번역되는데, 본래 '행동'을 의미한다.

인 성경 주해에 기초한 방법론을 강조한다. 이런 주석 방법에 근거하여, 성경의 통일성(예. 고후)을 강조한다. 논문을 전개할 때, 먼저 현대 교회의 취약점과 신학 연구 경향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 다음 성경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논지를 전개할 것을 서론에서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설명한다.[118] 다만 문법-역사적 주해를 넘어선 최근의 개혁주의 신학에서 소개되는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해석 방법을 본문 주해에 적용하고,[119] 서론에서 논문의 결론을 간략히 제시하여 독자를 배려한다면 더 많은 유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임영효교수의 신학 특징

임영효교수는 성경 영감과 권위와 통일성을 전제로 하여 신학을 전개하는데, 이것은 전제주의적 신학이라는 개혁주의라는 전통을 반영한다. 그리고 다수의 논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성경 단락의 주해를 기반으로 하여 논지를 전개한다.[120] 이런 특징은 임영효교수가 신약학으로 신학석사(Th.M.) 과정을 리폼드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연구한 장점을 살린 것이다. 그 대학원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조직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존 M. 프레임(John M. Frame) 교수가 "신학은 신자들이 성경을

118) 본인과 대화 중 임영효교수는 "상황은 급변하기에, 성경중심이 아닌 상황 중심적 연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119) 구약과 신약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유사성을 가진 채 소통한다는 설명은 박형대, "구약과 신약의 소통," 『Canon & Culture』 7/1 (2013), 29를 보라. 실천신학의 성경적 토대를 위해서 역사-언어-신학적 간본문성에 기반을 둔 전체 성경(*tota Scriptura*)에 대한 주해적 활용이 요청된다.

120) 임영효·채경락, "고신 실천실학 70년의 회고와 전망," 『고신신학』 18 (2016), 267.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 것을 즐겨 소개하면서, 이를 실천신학과 선교학의 연구영역에서 구현해 내고자 했다.

또한 실천신학 연구의 성경적 근거는 구약이나[121] 복음서나 계시록보다는 주로 신약 서신서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개혁주의나 건전한 복음주의권 학자들인 존 맥아더, 존 스토트, 존 파이퍼, 로이드존스, 브라이언 채플, 사이먼 키스트메이크, 랜스키, 타스커, 브루스, 달라스 윌라드, 스프로울, 제임스 패커, 제임스 몽고메리, 마이클 그린, 베르카일, 워렌 위어스비, 조나단 에드워즈, 칼빈 등을 논거를 위해서 즐겨 참고한다. 따라서 다른 입장을 가진 학자들과 대화하며 논증하는 방식을 활용하면서, 현대의 발전된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통찰력을[122] 실천신학과 선교학에 접목시키는 작업은 제자들과 후배들의 몫이다.

4. 나오면서

임영효교수는 실천신학, 선교학, 신약신학, 그리고 기독교교육에 대한 연구를 성경 주해를 바탕으로 하여 전개한다. 그 결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근거를 제공하는 기여가 있다. 이런 연구들은 성경 주해에 근거하여 유익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연구 주제에 관련된 선별된 개혁주의 참고 문헌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데, 이는 후학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임영효교수의 연구는 무엇보다 신학교

121) 구약에 나타난 선교의 근거를 아브라함 언약(창 12:1-3)과 시내산 언약(출 19:4-6) 등에서 찾는 경우는 W. C. Kaiser Jr., "구약의 선교 명령," 『복음과 신학』 3/1 (2000), 31-33을 보라.

122) 임영효·채경락, "고신 실천실학 70년의 회고와 전망," 266.

강의실과 지역 교회 사이의 단절과 간극(間隙)을 해소하는 큰 기여가 있다. 이런 성경적 토대 위에서 현대의 통합적 방식으로 현대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야 할 몫은 후배와 제자들의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임영효교수의 단행본들에는 이상에서 언급한 장점과 기여 그 이상이 담겨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123)]

임영효교수는 약속 시간을 엄수하며, 항상 용모와 언행이 단정하시다. 신학생을 존중하는데, 교수로 봉직하기 이전의 군목(軍牧) 활동 및 대구에서 수년 간 있었던 담임목회 경험의 선한 영향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교회성장에 있어 질적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양적 성장 지상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현실에 적실한 경고음이다.

성경적 리더십과 영성개발에 대한 강조는 임영효교수의 일상생활로써 증명된다. 몇 년 전 고신대학교 신학과 '마르투스수련회' 중에 '학생과 교수님과의 만남' 행사 때, "지금까지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라는 학생의 질문에 임영효교수의 답은 잊을 수 없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 정도 밖에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임영효교수는 강의실과 논문에서 외친 바를 일상에서 진지함과 온유함의 모습을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게 보여준 실천적 스승이시다. 또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와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된 성도들과 후학들을 사랑하는 귀감이 되는 분이시다.

---

123) 임영효, 『사도행전에서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프라미스키퍼, 2013);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연구』 (서울: 영문, 2004); 『유다서 강해와 설교』 (서울: 영문, 2007); 『건강한 교회 행복한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사역자』 (서울: 영문, 2004);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선교학』 (서울: 영문, 2012);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 (서울: 영문, 2008); 『신약성경 핵심 가이드』 (서울: 영문, 2009)

참고문헌

강용원. “기독교 인성교육의 성경적 기초.” 『기독교교육정보』 47 (2015): 361-98.

권오병. “기독교 대학 경영의 역세속화를 위하여: 대학의 사역적 탁월성과 학문적 수월성의 관점에서.” 『로고스 경영연구』 3/1 (2005): 71-76.

김철홍. “Some Sociological Implications of Paul’s Earliest Teachings in First Thessalonians.” 『선교와 신학』 27 (2011): 379-403.

김형길·이규현. “교회성장을 위한 마케팅과학의 적용.” 『로고스 경영연구』 11/2 (2013): 37-54.

김형동.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난 환난과 로마 제국의 상관성에 대한 재조명.” 『신약논단』 17/2 (2010): 325-56.

노재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과 성장에 관한 연구: 사도행전 6:1-7을 중심으로.” 『개혁주의교회성장』 5 (2000): 84-122.

문병하. “크리스천 리더십으로서의 멘토링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8/1 (2010): 359-78.

박성호. “정류 이상근 박사의 성서 해석: 고린도후서 주석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0/1 (2018), 35-63.

박형대. “구약과 신약의 소통.” 『Canon & Culture』 7/1 (2013): 5-36.

변인서. “부흥의 원리.” 『신학지남』 9/2 (1927): 166-71.

송영목. “데살로니가전서의 출애굽주제와 반로마적 메시지의 결합.” 『신약논단』 23 (2016): 477-516.

_____. 『시대공부: 신약으로 시대에 답하다』. 서울: 생명의 양식, 2017.

_____. “예수님의 재림.” 『교회와 문화』 37 (2016): 105-134.

_____. “요한복음 14장의 거주지의 성격.” 『신학논단』 79 (2015): 225-55.

_____. “유다서의 구문과 구조적 특성.” 『신약논단』 28/1 (2018): 181-206.

이광진. “목회서신의 교육사상.” 『신약논단』 21/2 (2014): 559-98.

이종윤. “신약에 나타난 기도와 교회 성장.” 『신학정론』 5/1 (1987): 46-68.
임영효. “고린도후서의 구성의 통일성.” 『고신신학』 2 (2000): 101-126.
_____.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엡 4:1-16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3 (2011): 9-65.
_____.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에 필요한 덕성들: 벧후 1장 1-11절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2 (2010): 179-222.
_____.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고신신학』 9 (2007): 51-81.
_____. “사도 바울의 사역관: 골로새서 1장 24-29절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9 (2017): 287-321.
_____.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죄에 대한 고찰: 히브리서 10:26-31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3 (2002): 199-219.
_____. “성경교육의 중요성: 딤후 3:15-17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5 (2013): 132-91.
_____.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관한 고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6 (2004): 137-75.
_____. “영성개발과 교회성장: 마 28장 1-20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0 (2008): 107-153.
_____. “영성 개발과 전도.” 『고신신학』 11 (2009): 279-315.
_____. “영적지도력의 본질로서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연구.” 『고신신학』 14 (2012): 357-422.
_____.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한 연구.” 『고신신학』 17 (2015): 115-54.
_____. “유다서가 보여주는 리더십 개발의 원리.” 『고신신학』 16 (2014): 219-81.
_____. “편집비평에 대한 반성.” 『고신신학』 1 (1999): 49-69.
_____.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 살전 2:7-12를 중심으로.” 『고신신학』 7 (2005): 17-50.
_____.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의 장(場)으로서의 직업생활에 대한 고찰: 데살로

니가전서 4:9-12절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5 (2003): 171-98.

_____.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의 원리: 데살로니가전서 1:5-7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8 (2006): 99-127.

임영효·채경락. "고신 실천실학 70년의 회고와 전망." 『고신신학』 18 (2016): 243-77.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샬롬: 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선교와 신학』 24 (2009): 243-78.

조철현. "교회학교 교사 리더십 역량 연구: 부산지역 K교단에 속한 중형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43 (2014): 265-94.

최홍석. "성경적 직제이해(職制理解)를 위한 교회론적 배경." 『신학지남』 82/1 (2015): 9-45.

한상인. "구약 인물과 현대인의 영성." 『성령과 신학』 18 (2002): 7-38.

홍창표. "성경권위에 입각한 편집비평에 대한 평가." 『신학정론』 3/2 (1985): 264-94.

Janzen, J. G. "The Scope of Jesus's High Priestly Prayer in John 17." *Encounter* 67 (2006): 1-26.

Kaiser Jr., W. C. "구약의 선교 명령." 『복음과 신학』 3/1 (2000): 28-41.

Ki. Y. H. "Planting an Indigenous Church in Korea as a Basis for Church Growth."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3/1 (2014): 175-99.

Thomas, R. L. "The Hermeneutics of Evangelical Redaction Criticism." *JETS* 29/4 (1986): 447-59.